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 주최 편집 인쇄	인 원 장 강 인 영 수	회 장 이 장 인 숙
외대신문사 (22962-7128, 961-4151) 외대학보 (22965-7048, 961-4152)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학산리 489		

제577호 1992년 4월 7일 (화)
제3종 우편물 (가)급인가

THE OE DAE HAG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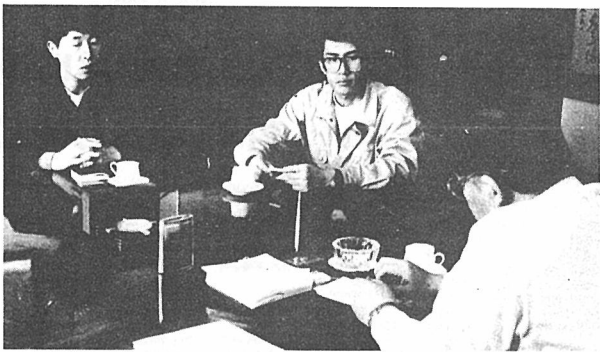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253호

외대의 깊은 잠을 깨우는 학생측 요구서안

학생측의 요구서안이 정리되고 학교당국과 협상에 들어갔으나, 외대발전은 위한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지엽적인 문제만 타결이 되고 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인 재단전입금 확충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토대로 만들어진 '학생측 요구서안'을 분석하면 다시 한번 1만 3천 학우들의 힘을 결집해나갈 때야 할 것이다.

올해의 동무가 예년에 비해 더욱 발전적이라 할 수 있는 점은 단지 등록금 인상률 싸움이 아닌 외대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과 이념, 학산이 하나되어 공동 무대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측 요구서안도 양 캠퍼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동의 접근에서 제1되었다.

학생측 요구사항은 크게 서울 캠퍼스의 '외대발전 2천원 위원회' (이하 2천원 위원회)와 용인 캠퍼스의 '외대발전위원회' (양산위원회)를 시작으로 한 교육재정, 교육개선, 교육내용, 교육제도 등의 부문에 걸쳐 작성되었다. 외대의 장단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 종로위원회 2천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에 관한



지난 3일(금)과 5일(일), 이문·왕산 총학생회장과 총장간의 네 차례에 걸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자 왕산 총학생회는 동맹휴업 천원투표를 실시하는 등 등록금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외대 발전의 핵심 고리 기층 학생 요구의 결집체, 자주학원 건설 토대 돼야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명시하여 공식적인 기구와 함께 필요한 예산은 학교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왕산은 종로위원회로 꾸러져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일단의 종로위원을 제1한 교수, 직원, 학생을 주축으로 하는 왕산위원회는 2천원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교육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2기구 모두가 외대발전이라는 공동 대진제를 가지고 있으나 각 캠퍼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분리 제기되었다. 즉, 2천원 위원회는 현재 이문 캠퍼스 공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왕산위원회는 건설과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실험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외대발전이라는 건국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하나의 기구 아래 각 캠퍼스별로 전문적인 기구를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양캠퍼스 각각이 전산기재정과 고등재정 상황액을 재단전입금 39% 원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단지 4.86%의 인상을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부담을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수익자는 단지 학생뿐 아니라 교육이 사회로 환원되기에 국가도 수익자가 되는 것이며, 국민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살펴볼 때 국가보조금의 확충은 당연한 과제이다. '학교예산의 80%를 재단이 부담한다'라는 사립학교법을 이기고 실질적인 공립재정의 수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만 4.86%에 불과한 재단전입금을 내놓는다는 것은 외대발전이 뜻이 없는 차사라는 주장이다.

무엇에 교육이전을 찾아보면 서울 캠퍼스는 이문동 교정의 근근적

개선을 위해 2천원위원회를 수립하고 학교당국과 재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식당, 건물 개선 등에 관하여 제기하였다. 도서관의 24시간 개방열람실 마련과 도서관정원위원회 구성하여 도서관의 장서를 확보, 도서관의 복지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도서관이 대학에 있어서 진정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식당 개선을 위한 재단전입금 1억원 확충과 식당 공간 문제 해결, 배식시간 연장 등에 관련된 식당 문제도 많은 학우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점, 저녁의 식사 불가용한 배식시간과 비좁은 식당에서 부끄러워하는 한학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반기로운, 저급한 식사의 질 등은 최소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화한 건물의 컴퓨터실 개방

시간 연장도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무시하여 학사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5시까지 개방한다는 것은 학우들을 학원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왕산 또한 도서관과 각 건물의 개선과 함께 신강아동과 대운동장, 제2학생회관, 입대자학원의 건설 등과 기층의 증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왕산의 고립방인 교통문제이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산을 노선 차량을 기존 15대의 신노선을 건설하여 과적 비스로 10대 이상을 증차하여 연중 운행, 현재의 동산에서 왕우까지 운행되는 113인 비스를 학교까지 연장 운행, 그리고 소월비스를 구입하여 학교 모퉁이를 운행, 학교 모퉁이의 비스 요금을 1만원대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통학시간이 보통 4~5시간씩이

유로 교수들에게 막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왕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결코 그렇기만 한 문제는 아니다. 즉 교수들의 협조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교수의 강의 방법에 대한 문제점, 교육개선과 교육이 자료 실체 등을 파악하여 강의 내용 개선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뜻에서 제기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교수들 사이에도 공개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강의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수와 학생의 공동의 노력으로 교수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개선에 관해 알아보면 입학적으로 개악된 학칙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마련, 6-3학년 제적자들의 재입학, 수강신청 제도와 재수강 신청서 학점 제한 철폐, 안문사 사원정원제 폐지와 기자 성취제에 규정된

군, 독재정권의 자치기구(?)

▲도대체 부정부패의 악몽이 되살아 나고 있다. 지난 이승만 정권때부터 지금의 6공화국까지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역대 어느 정권도 부정부패가 유구하게 나타난 적이 없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혹자는 남한 정치사를 논할 때 '부정부패'에 의한 부패한 정치권력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것에 의한다면 선거는 국민들의 올바른 주권행사의 장이 아니라 부패한 정권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가장 무도'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둘러싸고 초창기 온갖 아첨을 다 펼치던 정권과 거리의 배신기에서는 한바탕 하세 불타들이 합법도 하고 최후도 하면서 온갖 '좋은' 좋은 것 아니냐며 염포를 놓는 것이었다.

시대가 바뀌고 대통령이 '민주'와 '자유'와 '자율'을 해도 아직 가려진 배일 뒤에서는 독재정권의 도마로 민주화(?)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검은 민주주의 음모가 한 검은 정권의 양상선으로 폭로되고 말았다. 지난 3월23일 이거는 '군 부패'가 부패 부정부패' 폭로가 그것이다. 이종우에 의하면 군부패가 부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규모 부정부패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논란이 있을 때부터 일제 오해되었던 것이 '군 부정부패'라는 것은 이제 어느정도 상상이 되었지만 이전에 말했던 부정부패의 사례들은 가히 '선조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듯 하다.

그러나 더 절박한 국면은 정권의 말미다. 한마디로 군 부정부패는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서 더 이상 전정조치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가게 의문을 제기 수 밖에 없다. 이 저를 중화도 그렇고 그 이후에 언론은 왜 부정부패에 대해 사법부의 부정부패가 폭로사태들은 무엇으로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이제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들은 선거철에 또다지 찍어주는 '투표기계'도 아니고 더더구나 정치의 대상화도 아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각자 알아나 하라는 정부나 제도권은 국민들을 정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아니라 정치의 주인은 엄연히 국민이다. 때문에 이런 선거에서 나타난 '군 부패'가 부패 부정부패' 사건은 마땅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가 '세'로 모 든것이 밝혀질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들은 진정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부패한 정권의 부정부패가 아니냐, 기 무사히 비롯한 각종 공간 기구와 합법을 가정한 악법들이라면 우리들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분노'와 그리고 '단결'을 외친다.

악법은 이거사 캐드라고 부패한 정권은 민중의 힘으로 무너 뜨리는 것이 아직도 반합법은 역사발전의 진리인 것이다. (박현숙)

외, 91년 학보사 광고 협회사할 이행, 부정부패사 할심과 등으로 제 시되어있다. 이는 전년 6-3후 학원한 입학을 위한 '학원안정화대책'의 기초에 따라 개악된 사법의 민주적 개선을 위한 것 수 내용이다. 즉 학원안정화 대책에 따른 학칙개악과 안문사 단원 정지들은 자주학원 건설의 절실함이 되고 있을뿐 아니라 학원단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교에서부터 6-3후의 본질과 정정성을 회복하고 학원 대를 분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인국 본보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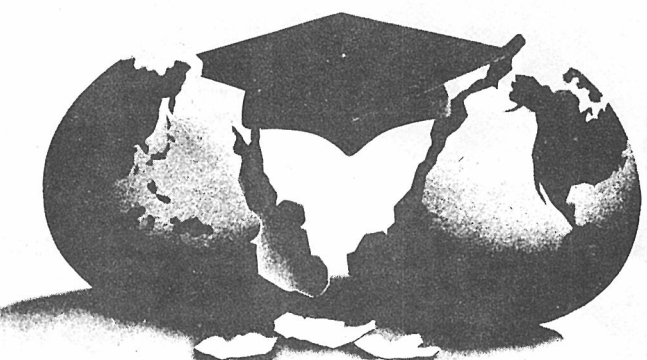
미래의 주역을 양성하는 교육산실

—균형있는 학문발전과 교육의 선진화

세계를 호종하는 知性과 미래지향적 국제인을 양성하는 외대는 21세기를 대비한 학문의 터전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상과 넓은 포로로 학문의 본질을 탐구하는 大人—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대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문의 융화에도 앞장서 나아가며 제반 학문의 선진화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동구이계열과 자연과학 분야에도 학문의 영역을 확대하는 외대는 이론과 실질을 겸비한 인재를 산출하는 학문의 집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문헌히 떨치고 오늘날 외대는 겹겹을 깨고 나오려는 노력으로 협착해 힘차게 미래로 나아 갑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동·서독 통일과정을 통해본 남북통일의 올바른 방향◇

아름다운 토요일 밤에
특별한 토요일 밤에
하루 이틀 동안
토요일이 토요일

김 석 수
〈본교 교양학부 강사〉

격변하는 정세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사실상 해체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로 대변되는 역사발전 단계에서 세계체제는 격변을 하고 있다. 특히 1991년 12월에 채택된 남침략의서는 남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끌고 있다. 독일분단과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다. 미·소간의 대립이려는 세계적 규모와 빈번한 체제 영향으로 독일과 한반도는 서로 다른 두개의 정권이 수립되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독일통일은 냉전의 희생자였던 남북한에 통일에 대한 희망과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독일통일과정과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 그리고 통일과 평화공존에 대한 현 남북한의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독일통일 전개 과정

동서독의 통일정책은 1945년 2월 얀타체제에서 시작되어 89년 12월 몰타체제를 거쳐 90년 10월3일 역사적인 통일과업을 달성했다. 이런 독일통일과정은 3기로 대별할 수 있다.

제1기는 알타제체하에서 서독의 아데나워 반공적 통일정책과 이에 대항하기 위한 동독의 올브라히트 적화통일정책이 대립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동서독은 통일을 위한 정치적 노력은 전혀 구제화되지 못한 단계였다. 그러나 이시기에도 양국은 51년 베를린협정을 체결해 양국간의 대도무역이 이루어져 비정식적 측면에서는 접촉과 교류가 활발했다.

제2기는 서독의 사회민주당의 집권 때부터 동방정착이 실시된 69년부터 72년 양독일관계의 기본조약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시기이다. 당시 수상 빌리브란트는 '1민족 2국가'(One nation two state)론에 입각하여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의 승인 없이 거부하면서도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외국이 아닌 특별관계로 보아 동서독간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이에 동독의 울브레히트도 동서독의 평화적 존과 양국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그리고 72년 양독국에는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동인의 초석이 된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대변되는 이 시

3계기는 72년부터 통일이 완성된 90년까지이다. 73년 동서독은 두개의 국가로서 UN에 가입했다. 체신협정체결(76)과 동서독간의 여행교류의 자유화(84) 그리고 배를

극심한 상호불신이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접근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동서독은 상대방을 와해시키려는 통일방안을 채택한 일이 없었다. 반면 남북한은 냉전 시대의 지배논리인 제로섬 정책을 또 일관해 왔다.

독일통일은 주권관적 상황이 변증법적으로 통일을 이룬것이다. 객

가 남북한의 지배블록은 통일을 제제유지나 정권의 유지와 안정에 이용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일통일 후 남북간에는 91년 12월엔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큰 진전이 있었다. 현재 평화공존과 통일에 대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만도는 아직도 '냉전의 성'으로 잔존하고 있다.

밉스교수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해보유국인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핵사찰을 받지 않는다면 군사적보복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군박을 백인우월주의와 미국이익우선논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미국식 카우



통일 통일인의 애가 보여주듯 민중과 유리된 통일은 있을 수가 없다. (사진:뉴스위크)

동서독 통일, 냉전구조 해체와 상호간 신뢰 지속으로 이룩
남북통일 정책, 남한및 미·일 독점 자본에 의해 주도 되기도

린강벽의 철책로 사실상 통일이 이
 루어졌다. 90년 5월에 동서독이
 단일 통화권이 되고 8월에 '독일통
 일'을 위한 조약에 동·서독정부가
 합의 조인하면서 90년 10월3일 독
 일통일과정의 대장정은 막을 내렸
 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은 금세기
 최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관적으로 냉전구조가 몰타선언으로 해체되었고, 85년 이후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동구지역의 변화를 가속시켰다. 독일은 이같은 정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동구사회주의국의 모방성인 동독에서 많은 모순이 노출되고 있었다. 대내적 상황으로 동서독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을 위한 정책, 비정치적 분야에서 신뢰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왔다.

남북한은 동구변화의 경향으로 상호불신의 벽이 아슬아슬 소련과 동구국의 변화가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 대해 시카고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 등은 주목을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국설을 지적하는 데 정국을 켜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의 안정이라는 탈냉전이라는 새 구도와 그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역할이다. 냉전시기의 봉쇄정책과 냉전정책의 동시적 수혜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소련이나 21세기의 작은 나라들의 위협을 패자로서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북한에 핵사할 압력으로

보이 정치경제학의 소산이다.
동독과 비교하며 북한이 자체적
으로 붕괴되기를 기다리자는 입장이
실득력을 얻고있는데 이런 경우
북한은 붕괴되기보다는 차라리 전
제를 선택한 가능성이 더 크다.

남북한의 통일정책

한 남한 지배층의 대북정책은
첫째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
고 둘째 평화와 통일체제를 우선
구축하는 것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하고 북한을 군사·외교적으로
압박하면서 자체붕괴와 개방을 유

일국가의 정책은 국가생존과 체제유지의 차원에서 입안되고 있다. 체제유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북한은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50-60년대의 국가역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변 사회주의국가들의 혁명적인 체제개혁은 합쳐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발전단계를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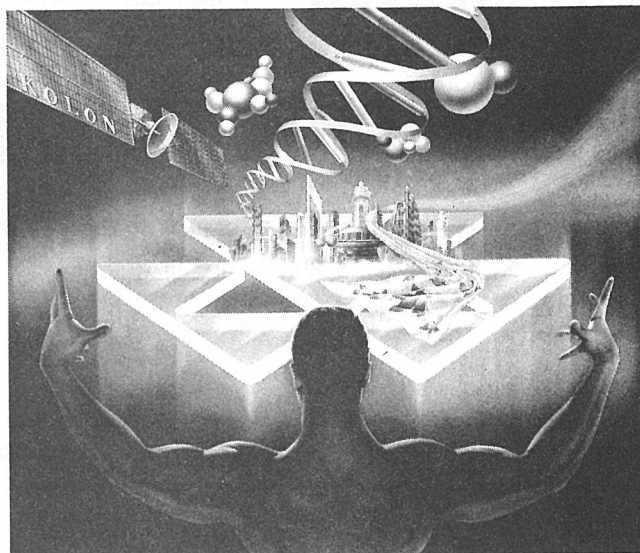
이탈산염의 분포

통일은 한반도에서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문제다. 노경권이 삶과 무관하게 정권과 기득권의 안정적 재창출을 위해 통일문제를 이용한다면 통일은 민중으로부터 유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독일 통일의 예가 보여주듯 민중과 유리된 통일은 자본이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곡과 정권이 주도하는 기득권층의 지배운동일 뿐이다.

독일공원은 동서독 당시자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었다. 한반도 통일 문제가 과거 강대국의 영향력과 종속도전에 의해서 보다는 남북한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평화와 화해 그리고 그 봉頭に 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남북한은 동서독간의 비극적 경험을 상기하고 관대함을 가지고 남북한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자세와 남북한 지배권력과 민중의 에너지가 빈증비밀적으로 공을 들이고 민족의 소원인 자주적·민족적 그리고 민주적인 공업을 완성될 것이다.

21세기 경제한국의 뉴리더 — 코오롱

**코오롱은 미래산업
개척의 의지를 한데 모아
21세기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한발먼저 미래와 만나기 위해
한걸음 앞서 출발합니다.
기술개발로 세계의 장벽을 뛰어 넘습니다.
인재양성으로 21세기 경제한국을 떠받칩니다.
창조와 도전으로 풍요로운 내일,
고도 기술 사회를 앞당깁니다.

21세기 경제한국의 뉴리더 - 코오롱
정보통신서비스, 정밀·생명공학, 첨단섬유산업,
초극세사 등 미래산업에 대한 꾸준하고도
과감한 투자로 세계속의 경제한국을 빛낼
뉴리더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보람의 일터」 운동을 통해
참여의 보람, 성취의 보람, 대가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기업풍토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보람의 일터 — **코오롱**

학원주인의 정당방위, 등록금 투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전국 각 대학의 자주적 움직임



다른 대학에선

본교 등록금협상이 학생측에서 학생요구의한 한전 권리와 정기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대학 당국에 강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각 사립대학들도 4월에 들어선 지금까지 등록금협상을 해진것지 못하고 있어 전 통을 주고 있다.

올해 전국사립대학 계열별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에 비해 인문·사회 계열 16.5%, 이학·체육 계열 17.6%, 약학 17.5%, 의·치학 17% 등 평균 40만원선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대학 대부분은 학생들은 대학당국에 맞서 물리적 행사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 오는 2학기 등록금 책정시 인상률은 낮추는 데 합의했다.

또한 현재 새로운 제안으로 '진로'가 거론되고 있으나 총학생회측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로프로그램의 경우 영입설이 나왔으나 부정적인 것으로 인하여 가능성이 희박해 지고 있다. 성대 제단이 되는 조건으로 전입금 1천3백원을 확정하고 매년 50%의 전입금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대 총학생회는 자체 조사 결과 진로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현재 배우자산업으로의 진출을 피하면서 2천원의 상향의 자금을 필요시 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기업들 부채율이 세 번째로 높다는 점을 들어 일관된 유보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복지대학원(경기도 광릉 소재) 등 세 곳에 나뉘는 제단전입금 15% 원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어 제단전입금 75%의 확충을 둘러싸고 학생측과 대학당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경희대 제단인 '교황제단'이 그동안 경희의료원과 마산의 기타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학교발전을 위해 전입하지 않고 있어 본교와 비슷한 양상을 띠며 등록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측은 지난 1일(수)부터 서울캠퍼스 총부총장실, 기획처장실, 학생처의 기기를 들어내고 "제단수익을 공개하라"며 수원캠퍼스의 본관건물 농성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물리적 행사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12일(목) 임시총회상대표총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실행해 오던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을 철회했다.

이후 서울, 안산 총학생회는 △발원본원, 기숙사 확충을 제단전입금으로 할 것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해 학생, 대학당국이 공동으로 할 것 △등록금조정 에-결산협의회를 등록금조정 에-결산협의회의로 발전시킬 것 △교과과정개편위원회를 조직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요구안을 18일(수) 제단이사에게 전달했으며, 20일(금) 교육부를 향한방문, 교육관계자로부터 발원본원 건물과 기숙사 확충에 따른 제단전입금의 확충 부분을 승인 받았다. 한편 한양대 국악 부원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당국이 지금까지 방원에 사용된 외화환에 대한 외화환 회사의 로비활동에서 나오는

올해의 등록금 투쟁은 예년과 달리 학교당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전적으로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라는 제정의 구조를 파해, 교육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전입금의 문제로 제단과의 마찰을 보이기도 하며, 각 대학 발전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생요구안이 제시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성대는 올해 19.64%의 등록금이 인상됐으나 작년 봉명재단의 퇴진과 부정입학 사건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실정이다. 성대 총학생회는 장승영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4월안으로 새로운 제안을 영입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1989년 1월 입사
■ 해사입부 동우협에서 담당
김철환

김철환氏의 "7시간 늦게 가는 시계"

인간·지구에 품 행복을...①

'엔지니어' 비용에 대해 89년 갑사 당시 전의 학교운영비로 사용된다고 밝혀왔으나, 이 비용이 제단으로 이입되고 있다는 한 발원관계자의 폭로에 따라 제단전입금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학생측과 이의 불가립장을 주고 있다.

중앙대학교

교육부로부터 작년 10월 24일 C급 판정을 받은 이후 중앙대는 'C급사태'라고 할 만큼 학내 분위기가 고조되어 지난 4월 2일(목)에는 '제2교 무정 전입'에 5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중앙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책정에 대한 계획없이 등록금을 부속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학교운영 태도를 비난하며 지난 3월 10일 1·2차 발전계획과 발전기금을 발표하고 학생들에게 4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에 근거하여 지난 달 26일, 27일 이틀간 총학생신평 투표 결과 투표자의 88.6%가 불신임에 동의하였고 이에 여론은 총장 사퇴 권고와 함께 제단에 대한 투자가 이행 촉구로 모아지고 있다.

'우리 학교 퇴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중앙대 학원전투와 사업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학내 제구상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7일과 8일 각각 예정하고, 4월 10일 등록금 명단 교육부 보고일까지 기간을 1차 중화의 시점으로 보아 등록금 대대적 투쟁에서의 생활적인 외전들을 과로부터 수렴하고 있다.

(여론부)

방황하는 대학교육

명수당 明水堂

1930년, 마드리드대학 교정은 47세의 호세 오르테가 가세트(1883-1955) 교수가 마드리드대학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당시 혼란의 와중에 들이었던 스페인의 대학들이 질이 가아할 방향을 상기된 젊은 대학생들에게 타일로 뜻 설명하고 있었다.

오르테가교수는 바로 이런 자리에 스페인 대학들이 필요했던 인물이었다. 스페인의 이같은 혼란은 1936년 북부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코 휘하의 군대가 마드리드 시가에 입성하자 독재자 프랑코에 대항하여 죽음을 불사한 격렬한 대학생들의 항쟁으로 그 극치를 달하였다.

'민중의 봉기(La Rebelion de las Masas)'라는 책을 저술했던 오르테가는, 인간사회는 다수 대량과 이들을 이끌어 가야할 엘리트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학생을 도를지기 했다. 즉 엘리트층이 속한다고 말하였다. 스페인의 혼란은 바로 다수 대량과 이들을 이끌어 가야할 대학생들, 즉 지식층이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 지적하였고 대학생들이 방황하게되는 근본원인은 삼차부성인인 스페인의 대학교육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음을 통탄하였다.

그는 대학은 인간의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고 학과와 우매함, 그리고 무질서거나 하잘것없는 영리영리만 한 것은 참다운 대학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만이 하나라도 막중한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이리악을 저지른다면 그 사회의 앞날은 암담하게 되고, 이같은 이리악을 다들 새대에게라도 우리들 사회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대학이란 모를지기 이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해내는 요람이고, 몇조각의 기술을 전수하여 주는 기술자 양성기관이 아닐텐데, 부

단한 개혁을 통하여 이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혁을 기피하는 대학과 대학인은 말년의 대열에서 도태되어 조악(凋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카디날 뉴만(1801-1890)이 그의 '대학의 본질(The Idea of a University)'이란 책에서 대학이란, 젊은이들에게 채워줄 거대한 바위와 같은 그들의 일정을 만도만 같은 지배로 바꾸어 조장한 봉납부채와 같은 그들의 자만심을 비탄하고 같은 자성으로 불타는 대라는 열기에 넘친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한



학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나 피겨 이들 대학의 교과과정 이 시대화되어있었다는 비판이 일면서 서둘러 새로운 분야의 강과 개설이 바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대학에서 경영학이 정규학위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고추한 몇몇 교수들이나 대학당국의 만만히 가지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겨 몇몇 세칭 '원로'교수들에 의해 교수회의(governing-body meeting)가 거의 독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약 2년전 필자가 케임브리지대학 나이던 칼리지 교수회의에 참석할 경험에 비추어 보면 50대

개혁에 과감하고, 시대와 요구에 순응하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해야

이흥탁
(사회학 담당교수)

다. 뉴만은 열정과 지성이 살아 숨쉬는 대학이란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인해서만 인하여, 눈앞에 다친 현실에 안주하거나, 미래를 향한 보다 폭넓은 개혁이나 비전없는곳에서 대학과 대학인은 방황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같은 뉴만의 주장을 반영하여도 하듯이 이제까지 교수들은 전이나 역사학이나 중요시하여 오던 영국의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대학에서도 이제까지 학문과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내외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임은 종합대학으로서의 발전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바라는 대학의 바람직한 상이 아니겠는가?

망설임과 무관심의 강을 건너주는



이제 막 새로이 대학생들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은 다소 익숙해지지 못해서도 학교생활에 적응할 점과 생소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별다른 외대 안에서 살아온 젊은이들 양생해내는 요람이고, 몇조각의 기술을 전수하여 주는 기술자 양성기관이 아닐텐데, 부

소중한 금금중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정립대에게 들은 것은 아가치는 여러방면이 적절 제언하세요.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문제나 학교생활의 달변을 바라는 요건의사항, 총학생회 사안에 대한 궁금증, 그 어떤 것이라도 많은 쪽지안으로든 외대학보 여론부가 취재하여 실명드립니다.

가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쳐 주는 일이 없는 대학, 버려진 개시판마다 다닥다닥 붙여진 대자보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정보요구물, 정립대에게 맡겼 활용하세요. 망설임 없이 답하십시오. 외대학보 기자에게 쪽지를 전하세요.

항가리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에서 -

항가리 부다페스트공항. 곧 이륙할 09:00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 내에서 지난 열흘간의 출장을 가만히 정리해봅니다. 다뉴브 강변을 뱉었으나 지나치면신도 신성한강변만 한뼘 뱉었어보지 못한만큼 빠르게 보면 10일간의 항가리 생활, 그리고 그 이전의 많은 날들 -

처음 동유럽 수험실에 배치받았을때 -

1989년 1월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배치받은 '현대자동차 해외사업부 동유럽팀'. 당시엔 '아직 수교도 안된 공산권으로 과연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상태였기에 어떤지 마음 한구석이 떨렸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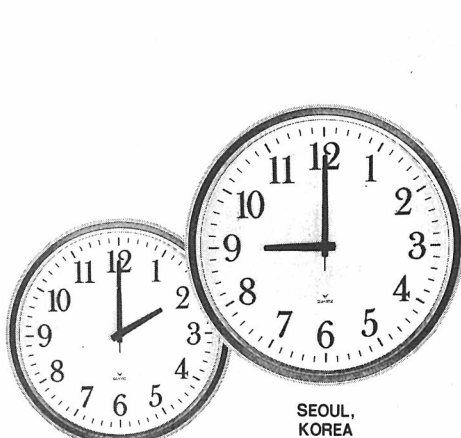
마침내 소련으로 건너 수출! -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년 1월, 마침내 우리는 정식 공산권의 대국 소련에 건너 수출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뒤이어 항가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이런 동유럽 전역에 걸쳐 우리의 자동차를 팔아달라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발 서울행 여객기에서 -

곧 김포공항에 착륙한다는 가짜 방송.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벌써 환한 아침인데 손목시계는 새벽 2시가 조금 지나 있습니다. 아직 세 시까지만 항가리 시간이었군요. 시계를 다시 7시간 앞당겨 놓으면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해야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차, 세계의 차
HDD 現代自動車



BUDAPEST, HUNGARY

